

주민 손으로 그리는 죽산의 미래

‘농촌공간계획 공동학습회’ 성료... 전국 10개 읍·면 중 선정 총 3회 열려

김제시 죽산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주민공동 학습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총 3차례 열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습회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학습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전국 10개 읍·면 가운데 김제 죽산면과 군산 개정면 등 전북지역 2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사업 총괄과 비용 지원, 홍보 등 전반을 책임지며 든든한 지원



군 역할을 하고 있다.

죽산면 공동학습회에는 주민, 마을리더, 청년, 행정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첫 번째 학습회에서는 국내외 농촌 재생 사례와 농촌특화지구 정주환경 개선, 경관·환경 보전, 생활서비스 확

충, 일자리 창출 등 다채로운 모델을 살펴보고 비전을 공유했다. 두 번째 학습회에서는 주민 제안과 주민협정 제도의 중요성과 실제 운영 사례를 학습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행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 학습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을 주제로, 단순한 발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소규모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도출해냈다.

그 결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빈집 활용 △배후마을 돌봄·생활서비스 확산 △역사·문화·환경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경제 △농촌융복합 관광과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연계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죽산면’이라는 장기 비전이 선포되면서, 참여자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죽산면은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시범사업과 주민제안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 갈 계획이다.

/오상근기자·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동부신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이어가며 또 한 번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전주동부신협, 지역사회 나눔 실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1000만원 기부... 누적 4886만원 달성

전주동부신협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이어가며 또 한 번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전주동부신협은 1일 본점(완산구 홍산북로)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인옥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동부신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재단에 기부를 이어왔으며, 이번 전달까지 누적 기부액은 4,886만 원에 이른다.

전주동부신협은 아늑하고 그늘진 곳에 따뜻한 햇살을 전한다는 신협의 이념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풍우경로당, 효자4동 주민센터, 선녀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이어왔으며,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관립 프로젝트,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한 금융·경제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는 신협 여성 성대회를 개설해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웨디에 클래스 등을 운영, 인적 네트워크 확장과 조합원 중심의 성과 환원을 실현하고 있다.

인옥순 이사장은 “신협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기안전공사, 추석 맞아 전통시장 72곳 전기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진안고원시장과 충북 청주 북부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전기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22일부터 진행되어, 전국 72개 전통시장 920여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차단기와 배선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부적합 시설물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명절 연휴 동안 전기화재 발생을 예방하는 데 힘썼다.

행사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과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점검의 효과를 높였다. 남화영 사장은 “전통시장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어서 작은 사고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객과 상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오상근기자

전주수목원, 열린관광지로 새 단장... 올해 방문객 57만명 돌파

보행로 무장애 길 정비·소담문 광장 조성... 탐방객 편의 크게 향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운영하는 전주수목원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났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보행이 불편한 탐방객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조성사업을 통해 △1.5km 보행로를 무장애 길로 정비하고 △혼잡했던 진입로를 넓은 ‘소담문 광장’으로 새롭게 꾸몄다. 또한 △탐방객들의 휴식을 위해 피크닉 쉼터를 확충하는 등 탐방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탐방환경 개선 효과는 수치로도 확

인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주수목원 누적 방문객은 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 명)보다 21% 늘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29만 명이 몰리며 개원 이래 최대 방문 기록을 세웠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주수목원이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명소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본부, 추석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전력설비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력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시 시기동 샘골시장을 시작으로 진행된 점검에서는 한전의 전력공급 설비와 고객설비의 안전 상태를 집중 확인했다. 한전

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내 14개 지역 59개 전통시장(아케이드형 44개소 집중점검)과 전주역 등 2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열화상 진단과 드론 점검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특별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선 및 전주 등 전력설비 △전통시장 내 전력선과 근접 건축물 통선선 고객설비 △전력설비

과부하 및 접지 상태 등이다.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신속한 보수와 사후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수칙과 전기요금 절약 방법을 안내하며 안전과 고객 만족을 동시에 도모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수칙 당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가정 내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세심한 전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귀성길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냉방과 등 꼭 필요한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충전기, 밥솥, TV 등은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분리해야 불필요한 전력 낭비와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명절 동안 가족이 모여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전을 한꺼번에 켜고 쓰는 멀티탭은 과부하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전력 소비가 큰 냉난방 기기가 전기레인지 같은 조리 기구는 반드시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야 한다.

/오상근 기자

지역 농산물·온누리상품권 전달

전북테크노파크, 추석 맞아 사회공헌활동

전북테크노파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9월 30일 사회복지시설 ‘삼성휴먼빌’을 방문해 노사합동으로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정을 나누고, 풍성한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의미 있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익산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 이 물품과 상품권은



이날 삼성휴먼빌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됐다. 이규택 원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